

마르크스의 批判方法에 대한 研究: 스미스와 리카도에 대한 批判을 中心으로

洪 薰*

논문 초록 :

동구 몰락 이후 마르크스주의는 대안적인 위치를 잃어 가고 있으나 마르크스의 인식론이나 방법론은 다른 학파와 재결합하면서 새로운 조류를 형성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학설사』, 그 중에서도 스미스와 리카도에 대한 비판을 분석해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상적인 이론이나 학설사에서 구사하는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방법이 총체적, 비실증주의적 그리고 내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최근에 등장한 비판적 실재주의와 상통한다. 또한 이 방법은 새로이 문제들을 구축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가결하며, 한국 학계와 같이 이론을 수입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마르크스, 학설사, 방법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4

동구의 몰락과 함께 마르크스주의는 종래의 대안적인 위치를 잃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조류와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입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법론이나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이런 경향이 보다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한 예로서, 마르크스주의와 오스트리아학파, 특히 마르크스와 하이에크를 한꺼번에 묶으려는 비판적 실재주의(critical realism)를 지적할 수 있다(Sayer, 1979; T. Lawson, 1989, 1994; C. Lawson, 1996; Fleetwood, 1997).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재조명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이 논문에 대해 건설적인 논평을 해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제시한 마르크스의 방법론이나 인식론들은 그의 경제학적인 저술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현실적인 연구와 직접 연관시키기 힘들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경제학 저술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저술이 『잉여가치학설사(Theorien über Mehrwert)』이다. 『자본론』이 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라면, 『학설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학설사』에서 마르크스는 다른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마르크스의 『학설사』는 근대에 슈페터(J. A. Schumpeter)가 저술한 *History of Economic Analysis*를 능가하는 깊이와 폭을 지닌 저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고유의 난해함과 난삽함이 겹쳐 『학설사』는 지금까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학설사』에서 스미스와 리카도(SR)에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와 리카도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비판 방법을 가장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미스와 리카도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학설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우선, 마르크스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경제학자들에 대해 마르크스가 제기했던 총론적인 비판을 제시하고, 둘째로 스미스에 대한 비판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며, 셋째로 리카도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넷째로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마르크스적인 비판의 특징을 추출하고, 끝으로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이 주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¹⁾

I. 經濟學에 대한 마르크스의 總括的인 批判

마르크스의 『학설사』는 ‘총평’이라는 제목하에 제시된 반 페이지 정도의 짧은 주장으로 시작된다(Marx I, p. 40). 또한 총평과 같은 취지의 논평들이

1) 이 논문은 주로 『잉여가치학설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본론』 등 여타 저작에 포함되어 있는 학설사적인 논의도 고려했다. 또한 이후의 논의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인용귀는 『잉여가치학설사』(*Theories of Surplus Value, Part I, II, III*, Progress Publishers)에서 따온 것이다. 끝으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학설사』, 『정치경제학비판』, 리카도의 『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는 각기 『학설사』, 『비판』, 『원리』로 약칭된다.

『학설사』의 여타 부분에서도 발견된다(I, p. 88; II, p. 373). 이런 진술들을 통해 마르크스는 모든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잉여가치를 제대로 개념화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경제학자들은 잉여가치를 그 자체로서, 순수한 형태로서 연구하지 않고 이윤 및 지대라는 개별적인 형태 속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오류를 범했다.....”

마르크스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잉여가치를 독자적인 범주(개념)로 설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이윤, 지대, 이자 등 제반 소득개념들을 그 자체로서만 논의해 이것들이 잉여가치의 구체적인 형태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형태와 분리되는 보편적인 범주로서 잉여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마르크스는 비판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노동가에게 지불한 것 이상으로 노동자로부터 추출해 낸 노동, 즉 부불노동(unpaid labor)이 생산한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관계에 근거한 착취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포착하는 개념이 잉여가치이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잉여가치가 창출되고,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화되며, 여기서 다시 기업이 이윤, 이자 그리고 지대가 파생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근접했는지를 모든 경제학자에 대한 비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기준은 『학설사』의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개별적인 양상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SR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주로 『자본론』을 통해 또 다른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제 1권 제1장에서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상품물신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다. 물신성으로 인해 경제주체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생산관계를 자연적인 존재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치를 자연의 산물로 보거나, 화폐를 금이나 은의 천연적 속성으로 설명하거나(『자본론』 I, p. 82), 나아가서 자본을 기계 등 물체로 환원시키는 인식상의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타파하는 개념으로 마

르크스는 가치형태를 제시하고 있다(『자본론』 I, p. 80, pp. 80-81, 각주 2, p. 81, 각주 1). 가치형태는 가치가 표현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든 모습을 포괄한다.

p. 80, “정치경제학은 비록 불완전하나마 가치와 가치의 크기에 대해 진정으로 분석했으며, 이들 형태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왜 노동이 노동생산물의 가치에 의해 대표되고, 왜 노동시간이 그러한 가치의 크기에 의해 대표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pp. 80-81, 각주 2 “고전경제학의 주요 결함 중 하나는 상품, 그리고 특히 가치에 대한 자신들의 분석을 통해 가치가 교환가치가 되는 형태를 발견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전경제학의 최고대표자들인 스미스와 리카도조차도 가치형태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상품의 내적인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모든 상태의 사회에 자연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영구적인 것으로 취급하게 되면 가치형태의 고유한 성격을 필연적으로 간과할 수 밖에 없다……”

『자본론』의 이와 같은 지적을 등에 업고 『학설사』를 강독해 보면 적어도 몇 군데에서 유사한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I, p. 92). 이 기준 역시 SR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가치형태가 『학설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가치형태라는 개념이 잉여가치 개념보다는 나중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가치형태는 겨우 『비판』(pp. 39-48)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비로소 『자본론』(1권 1장 3절)에 이르러 안정적인 개념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잉여가치 개념의 결여와 가치형태에 대한 간과가 모든 경제학자들에 대해 마르크스가 공통적으로 적용한 비판점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두루걸이’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기준들이 고전경제학과 속류경제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평가에 따르면 고전경제학은 불완전하나마 과학성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속류경제학은 자본주의의 이념에 불과하다. 양자에 대한 비판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SR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우선, 잉여가치 개념에 대한 논의에 있어 고전경제학은 그 이전의 경제사상이나 속류경제학과 구분된다. 고전경제학이 비록 잉여가치 개념을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잉여가치라는 개념을 모색하거나 이 개념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전경제학 이전의 경제 사상이나 속류 경제학에는 잉여가치에 대한 관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이러한 관념에 배치되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튜어트(J. Steuart)를 포함한 중상주의자들은 가치의 창출이 국내 및 국제간의 교환과정에서 매매를 통해 발생한다고 생각해 잉여가치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I, 1장). 이 점에서 그의 논리는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개념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또한 속류경제학자 시니어(N. Senior)의 제욕설(abstinence theory)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이윤을 설명하고 있어 잉여가치 개념에 적극적으로 배치된다(I, pp. 287-292). 나아가서 속류경제학 전체를 대변하는 논리로 알려진 삼위일체론(Trinity Formula)은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의 세 가지 생산요소가 모두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에 공헌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와는 대립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III, pp. 453-540).

이에 비해 고전경제학은 전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가치가 증가한다고 생각해 잉여가치 개념에 친화적이다. 물론 중농주의를 대표하는 케네(F. Quesnay)는 농업이라는 특정 부문 또는 산업에만 집착해 지대라는 개념 속에 잉여가치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일반적인 범주로 설정하지 못했다(I, p. 47). 또한 농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생산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잉여가치의 개념에 보다 근접하게 된 SR도(I, p. 85) 잉여가치를 이윤과 동일시해 별도의 개념으로 설정하지 못했다(I, pp. 82-83, p. 89, pp. 373-374). 그렇지만 이들은 잉여가치를 대신하는 개념들을 구사하면서 이것을 생산과정과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치형태의 간과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고전경제학과 속류경제학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고전경제학이 가치형태라는 개념에 배치되는 논리를 전개하지 않은 데 비해 속류경제학은 이러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고전경제학은 가치의 실체에 대해 불완전하나마 상세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생산연관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비해 속류경제학은 노동가치설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수요/공급의 논리에 근거해 자본주의에 대해 표피적인 옹호론을 전개했다.²⁾

잉여가치에 상응하여 속류경제학이 제시한 것이 삼위일체론이라면 가치나 가치 형태에 상응하여 속류경제학이 제시한 것이 수요/공급론이다.

특히 베일리(S. Bailey) 등은 인식의 차원에서 자본가 등 경제주체와 동일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실체라는 것에 대해 막연하나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가격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에 함몰되어 가치형태를 개념화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II, p. 172; III, pp. 124-168). 고전경제학이 가치실체에 집착해 가치형태를 간과하고 있었지만 속류경제학은 가격에 집착해 가치실체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속류경제학이 가격을 가치형태로 재정립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다.

종합하자면 SR를 포함한 모든 경제학자에 대해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개념의 결여와 가치형태의 간과를 지적하고 있으나 속류경제학이 이것들에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논리를 전개한 데 비해 고전경제학은 이것들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II. 스미스에 대한 批判

이제 SR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으로 논의를 좁혀 보자. SR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와 가치형태를 비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SR은 이들 개념들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평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SR를 부르주아경제학의 최고봉이라고 평가해 SR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결론적으로는 동조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스미스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리카도에 대한 비판을 논의하고자 한다.

스미스의 가치론에 투하노동가치설, 지배노동가치설, 그리고 생산비설(adding-up theory)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국

2) 삼위일체론 및 수요공급론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한계생산력설 및 수요/공급이론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속류경제학과 신고전학과 경제학 간의 친화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속류경제학은 현상의 표면에 머물러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에 의해 경제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구조를 완전히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시키는 합리적인 기대가설 같은 논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부론』, 6-7장; Dobb, 2장) 우선 투하노동가치설은 상품의 가격이 그것에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 원리가 문명화되기 이전의 시대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자본축적과 토지사유가 지배하는 문명사회에는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오히려 투하노동가치설이 아니라 지배노동가치설이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지배노동가치설이란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이 아니라 그 상품과 교환되는 노동자의 숫자 또는 노동시간이 상품의 가격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현상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 생산비설을 주장했다는데, 이 학설은 상품의 가격이 임금, 이윤 그리고 지대로 구성되며 이것들이 합쳐져 가격을 이루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 세 가지 주장은 서로 다른 논리이고, 스미스의 가치론에서 이들이 전혀 결합되지 않은 채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마르크스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투하노동가치설을 생산비설 및 지배노동가치설과 각기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산비설은 가격과 같은 수준에 있는 임금, 이윤 및 지대로 가치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순환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³⁾ 나아가서 투하노동가치설과 생산비설은 상호 모순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마르크스도 생산비설이 스미스가 애당초 제기한 투하노동가치설과는 무관한 논리로서 구체적인 가격현상에 대해 속류적인 묘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하노동가치설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중에서 임금, 이윤 및 지대가 파생된다고 보는 데 비해, 생산비설은 거꾸로 임금, 이윤 및 지대가 독자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들이 모여 상품의 가치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배노동가치설은 가격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학설은 상품의 가격

3) 여기서 ‘순환성(circularity),’ ‘순환논리(circular reasoning),’ 그리고 ‘동시결정(simultaneous determination)’이 구분되어야 한다. 우선 순환성은 가치방정식이나 생산가격 방정식에서처럼 투입가격과 산출가격들이 상호환류(feedback)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논리는 수리적 논리를 포함해 논리일반에 있어서 결론이나 이에 상당하는 명제를 미리 끌어들이며 원하는 결론을 얻어 내는 오류를 의미한다. 끝으로 동시결정은 신고전학파의 일반균형이나 숙련노동의 환원계수 결정에서처럼 연립방정식체계에서 모든 변수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전학파와 마르크스는 이들 3자를 일반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해 다소 상세히 논하고 있는 것으로 줄고(1993)를 참고하기 바란다.

을 상품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단순히 노동 단위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격이나 이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스미스는 노동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여타 상품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지배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치의 척도로서 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노동(력)의 가치도 변동하기 때문에 노동에 의한 상품의 가치표현(pi/w)이 그 자체로서 여타 표현방법(pi/pj)보다 나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문제는 마르크스가 지배노동가치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스미스가 투하노동가치설을 주창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스미스가 지배노동에 집착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스미스가 리카도보다 우월하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여타 상품으로 표현된 가격이 상품 간의 교환을 대변하고 있는 데 비해 지배노동가치는 ‘산’ 노동과 ‘죽은’ 노동 간의 교환, 또는 보다 발전시키자면 노동력이라는 상품과 자본의 교환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노동에 대한 지배 또는 노동과의 교환량으로 표현되는 상품의 가치에 집착한 것은 생산과정의 결과로 나온 상품들이 이전보다 많은 양의 노동과 교환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노동가치에는 잉여가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잉여가치의 비밀을 스미스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해석이다(독일어판 I, p. 59).

마르크스는 스미스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확고하게 등가교환인 단순상품교환에 투하노동가치설을 적용했던 그가 자본주의적 생산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부등가교환이 되어 버린다는 직감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스미스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존재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잉여가치 창출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면서 스미스에 있어서 투하노동가치설이 희석되고 과정을 추적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과정의 결과로 파악된 잉여가치 혹은 가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지배노동가치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배노동가치설은 투하노동가치설의 자취와 결과로 나타나는 잉여가치에 대한 관찰이 결합되어 발생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생각은 아래 인용귀에서 드러난다(1, 3장 1절, pp. 86-88).

p. 86(독일어판 p. 58), “.....사실상(노동력의 판매에 함축되어 있는 매개 운동은 결과에 있어서는 소멸되는 것임).....”

pp. 87-88, “.....자본의 축적 및 토지사유의 등장과 함께 — 즉, 노동조건들이 노동 그 자체에 대해 자립적인 존재가 될 때 —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 아마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도 그런데) 가치법칙이 그 반대로 돌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데 — 그의 장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그가 느끼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적인 강점이면서 이러한 모순으로 심지어 단순상품교환에 대해서조차 보편적인 법칙에 대한 그의 신뢰가 동요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적인 약점이다.....”

보다 넓게 본다면 마르크스는 투하노동가치설이 잉여가치 개념의 전제가 되며, 투하노동가치설에 이미 잉여가치의 개념이 잉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잉여가치라는 개념도 사용가치적인 측면이나 잉여발생의 우연성을 시사하는 잉여물(surplus)이나 잉여생산물(surplus product)과 달리 이미 가치 개념을 포용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투하노동가치설과 추가된 노동에서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을 스미스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I, p. 79). 이렇게 볼 때 스미스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투하노동가치설 자체나 잉여물 혹은 잉여생산물에 대한 인식, 또는 노동에 의해 이윤이 창출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투하노동가치설과 노동에 의한 이윤창출 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결합의 핵심이 되는 것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설정과 노동자계급을 착취해서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스미스에 있어서 투하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의 개념이 수미쌍팔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논리적 부담이 가치론에 전가되었고, 이러한 전가가 지배노동가치설로 일차 등장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생산비설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비판을 정리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도입 → 부등가교환에 대한 발견 → 잉여가치 개념의 결여 → 투하노동가치와 잉여생산물 간의 모순 → 지배노동가치설로의 이동 → 생산비설의 제시가 될 것이다.

물론 스미스가 상품의 가치결정론으로 지배노동가치를 강력히 주장한 것은 지배노동가치설이 가치론이 아니라 가치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이같은 스미스의 오류를 단순히 우연으로 처리하

거나, 지적인 능력의 부족 등 개인적인 요인 혹은 당대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등으로 돌리지 않고, 스미스가 전개한 논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해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마르크스의 해석은 지배노동가치설 그 자체가 아니라 스미스의 가치론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논리전개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시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스미스의 이론체계에는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것(esoteric)과 외면적인 것(exoteric)에 대한 서술이 결합되지 않은 채 병존하고 있다.(II, p. 165) 내재적인 것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핵심이고 외면적인 것은 경쟁속에서 개별주체가 관찰하는 대로의 구체적인 현상이다.⁴⁾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것들은 각기 자본주의의 본질(essence)과 외양(appearance)에 해당되는 것인데, 본질에 관한 법칙에 근거해 외양이나 현상이 설명되며 외양은 본질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율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스미스에 있어서는 양자가 서로 결합되지 않은 채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논평이다.

이런 이유로 스미스는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론적 설명과 아무런 연관없이 자본주의의 외면을 묘사하는 작업으로 ‘건너뛰고’ 있다. 또한 그는 양자가 서로 충돌할 때에도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스미스에 있어 경제현상은 부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며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우연적인 부분을 남기게 된다.

이런 방법론적인 설명은 『학설사』 II 편에 나타나고 스미스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I 편에 등장하므로 방법론적인 설명이 이론적인 논의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비판을 가치론에 적용해 보면 본질과 외양은 각기 투하노동가치설과 생산비설(혹은 그것에 근거한 자연가격 및 시장가격)과 연관될 것이다. 따라서, 본질과 외양의 괴리는 가치의 실체와 가치형태 혹은 노동가치와 가격이 상호 연관 없이 분리되어 취급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I 편의 전거는 다음과 같다(I, pp. 90-91, pp. 96-97).

“.....여기서 이윤은 더 이상 잉여가치의 성격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자본가

4) 내재/외면의 구분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최근의 논자로는 리피에츠(A. Lipietz)를 들 수 있다(1장).

의 ‘이익’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사실상 처음에 스미스는 바로 상품의 가치가 임금, 이윤 그리고 지대를 규제하는 것으로 간주했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반대방향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서(이것은 경험적인 관찰이 보여 주는 것과 일상적인 생각에 보다 가까운 것인데), 이제 상품의 자연가격이 임금, 이윤 그리고 지대의 자연율을 합산함으로써 계산되고 발견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밑줄친 부분은 추가 됨).

스미스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투하노동가치설과 이윤의 발생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결합되어 잉여가치를 내포하는 투하노동가치 또는 투하노동가치를 전제로 하는 이윤론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부담이 가치론의 붕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비설에 근거해 자연가격이 설정되고 이에 근거해 시장가격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가격을 이미 붕괴된 가치론 위에 구축하는 격이 되었다. 끝으로 이것은 방법론상으로 본질과 외양이 결합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이 개념화할 수 없었던 잉여가치를 스미스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가치론에 있어 스미스의 이중적인 성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III. 리카도에 대한 批判

리카도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리카도의 ‘학설사적인 위치’에서 시작해, ‘방법론상의 오류’를 거쳐, ‘이론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一貫珠의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로 리카도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여러 경제학자들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들 중 백미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리카도의 학설사적인 위치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의는 스미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스미스에 이르러 경제학은 포괄적인 체계를 갖추었으나 이미 언급한 대로 스미스는 내재/외면의 이중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평가이다. 스미스에서 리카도에 이르는 시기에 등장한 경제학자들은 이 두가지 측면 중 한 가지에 집착한 나머지, 세부적인 논리발전이나 구체적인

현상의 묘사에 머물렀으며, 어떤 이론적인 발전도 이룩하지 못한 것으로 마르크스는 보고 있다.

이어 등장한 리카도는 이와 같은 혼돈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구성하는 투하노동가치설이 정치경제학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투하노동가치설로 대변되는 스미스의 내재적인 측면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리카도는 전례없는 논리적 일관성을 경제학에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리카도가 경제학의 과학성을 드높였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결맞는 것이다(Rima, p. 121). 리카도가 투하노동가치설에 기초해 경제학에 일관된 체계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은 스미스가 빚은 혼란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었으므로 학설사적인 위치로 볼 때 리카도의 노력은 지당한 것이었다고 마르크스는 평가했다. 이에 대한 마르크스의 극적인 묘사는 아래와 같다(II, pp. 166-167).

“……애덤 스미스의 후계자들은……스미스의 내재적인(esoteric) 측면을 추종하든, 외면적인(exoteric) 측면을 추종하든, 아니면 대체로 그렇듯이 양자를 뒤섞든, 항상 스미스를 자신들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리카도가 끼어들며 학계에 소리쳤다: 잠깐 정지! 리카도는 부르주아체제의 생리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결정이 그러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이러한 학설사적인 위치에서 비롯된 출발점으로 인해 리카도는 일정한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의 방법론적 한계는 연구방법(method of investigation)과 서술방법(method of presentation procedur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II, pp. 164-166). 그의 서술방법은 주로 『원리』의 구성(architectonics)을 통해 드러난다. 마르크스는 연구방법상의 한계가 서술방법상의 한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 자신의 입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실체와 형태 간에 필연적인 연계가 존재하며 가장 추상적인 원리에 의거해 가장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그는 본질에서 외양으로의 논리적인 발전과 그 반대방향으로의 발전을 사고의 왕복운동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운동은 추상수준의 증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구체적인 현상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원리에 매개고리들(essential links; Mittelglieder)을 부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영어판 II, p. 165; 독어판 II, pp. 161-162). 이와 같은 매개고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전형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자본론』 3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형론에 대한 예비작업으로 마르크스가 잉여가치와 이윤의 관계를 논의하고, 잉여가치율과 이윤율 간의 관계를 제시하며, 비용가격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 등은 모두 이런 매개고리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⁵⁾ 리카도의 인식에는 마르크스가 말한 추상과 구체 간의 운동이 결여되어 있었다. 리카도는 스미스의 내재와 외면 중 전자를 ‘선택’하여 정당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일단 후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다고 논리적 일관성을 지향했던 리카도가 스미스처럼 구체적인 현상을 이론과 관련짓지 않은 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자신의 이론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현상이 반격을 가해 올 때 리카도가 추상수준을 낮추어 가면서 이론 속에 현상을 포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카도는 자신의 이론에 구체적인 현상을 직접 대비시키는 연구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해석이다. 리카도의 연구방법에 대해 매개고리들을 생략했다고 마르크스가 비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II, p. 174).

이러한 연구 방법상의 문제는 서술 방식의 문제를 낳는다. 리카도의 『원리』를 보면 후반부의 상당부분이 앞선 몇 장에서 논의된 가치론의 반복, 응용 또는 세부적인 확장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서 추상적인 이론들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해석이다. 거꾸로

5) 가치형태에는 모든 형상의 가격과 화폐가 포함된다. 보다 특정적으로 가격에는 상품생산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가격일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생산가격과 시장가격이 모두 포함된다. 생산가격과 시장가격에는 노자계급관계와 산업 간의 차이가 고려되고 있다. 노자계급관계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하며, 산업 간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생산가격과 시장가격에는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생산가격이나 시장가격은 이런 요인들로 발생하는 복잡성이 논리화되어야 가치형태로 완벽하게 설정되는 셈이다. 더구나 생산가격에는 이윤율의 균등화경향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별가치와 개별가격, 개별잉여가치와 개별이윤은 상호 일치하지 않게 되어 전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같이 전형론이 노동가치와 생산가격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이런 제반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치형태의 문제와 달리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개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가격 역시 가치가 이론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형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제1장의 가치론에 이미 대단히 구체적인 경제형태를 나타내는 평균이윤율 등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구성상 문제점이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다.

이와 같이 리카도는 자신의 학설사적인 위치로 인해 매개고리나 추상수준을 무시하는 연구방법과 개념들의 논리적인 순서를 무시하는 서술방법 등을 드러내고 있어 방법론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평가했다.

셋째, 이와 같은 학설사적인 위치와 이로 인해 비롯된 방법론상의 한계는 리카도에게 이론상의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이론상의 문제는 대체로 가치형태에 대한 간과로 집약할 수 있다. 스미스가 주로 잉여가치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투하노동가치론의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면 리카도는 주로 가치형태의 설정과 관련해 투하노동가치론의 논리적 귀결을 논의하고 있다. 리카도가 매개고리를 무시하고 본질과 현상 간의 대비를 기도했던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가치실체와 가치형태 간의 관계로 이어진다. 즉, 추상적인 가치 법칙을 점차 구체화시켜 가치형태로 발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가격현상에 가치법칙을 충돌시킴으로써 구체적인 현상을 가치의 형태로 정립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II, p. 164).

여기서 마르크스의 논리를 되살려 보자.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에 있어서 가치형태에 대한 논의는 가격과 화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치형태가 가치를 표현하는 상품에 있어서 가격으로 나타날 것이며, 상품의 가격을 표현해 주는 화폐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각기 상대가치형태와 등가형태라고 불렀다. 상대가치형태와 등가형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듯이 가격과 화폐는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SR를 비판할 때 가치형태를 주로 화폐로 간주했던데 비해(Ⅰ, 3절), 『학설사』에서는 가치형태를 가격으로 간주해 리카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가격으로서의 가치형태에 관한 문제는 마르크스의 전형론 및 임금/생산가격 변동론과 연관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투하노동가치라는 추상적인 원칙을 몇 가지 고리를 통해 일반이윤율의 지배하에서 존재하는 보다 구체적인 가치형태, 즉 자연가격(생산가격)으로 전형시켰다. 그런 연후 이것에 근거해 임금 및 생산가격의 변동이나 생산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관계 등 보다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자본론』 III, 1-2편, 특히 1-3장과 8-9장).

리카도는 일반이윤율이 지배하는 경우 발생하는 노동가치와 생산가격 간의 전형문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곧바로 임금변동으로 인한 자연(생산) 가격의 변동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리카도가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현상에 직접 충돌시킨다는 마르크스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노동가치와 생산가격 간의 관계가 임금의 변동과 생산가격 간의 관계보다 일차적인 문제이므로 리카도가 부차적인 문제에 집착한 셈이다(II, p. 176, p. 180, p. 192).

추가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리카도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가치형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잉여가치의 개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리카도가 스미스와 같이 잉여가치에 대한 개념의 결여로 인해 전형, 경쟁 그리고 지대론 등에서 일관되게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II, p. 373). 이렇게 볼 때 리카도의 문제점도 방법론, 가치형태 그리고 잉여가치의 세 측면에서 제기되는 셈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스미스에서 나타났던 마르크스의 고유한 해독법이 리카도의 경우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미스의 지배노동가치설에 대해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개념이 잠복해 있다는 긍정적인 내면을 파헤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리카도의 『원리』 1장 가치론을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리』 1장 4절의 네 가지 예중 첫번째(『원리』, pp. 33-34)에서 리카도는 자본의 내구성을 취급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해 원초적으로 내구성의 문제를 배제시키고 있다.⁶⁾ 두번째 예(pp. 34-35)에서는 고정자본의 투입비율상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 그의 원래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자본규모상 차이만을 고려하고 있다. 더구나 네 번째 예(p. 37)는 첫번째 예와 무언가 다른 것을 의도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첫번째와 전혀 다르지 않은 반복에 불과하다. 결국 세 번째 예(pp. 35-36)만이 리카도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임금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세 번째 예를 제외한 나머지 예들을 살펴보면 일반이윤율이 지배하는 경우 개별가격이 투입된 노동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핵심적인 문제가 ‘잠재’되어

6) 사실 마르크스에 따르면 SR는 공통적으로 국민총생산물이 완전히 소득으로 분해될 수 있다고 보아 원료 및 기계의 감가상각분이 총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I, 3장 8절).

있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원리』 1장에서 리카도 자신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은 임금변동에 의한 생산가격의 변동이었으나 실제 논의된 것은 전형문제였다는 것이다(II, pp. 175-176). 또한 리카도가 자신의 논의에서 저지른 실수들은 상당부분 이같은 잠재성의 발로로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입장이다(II, p. 189).

이렇게 본다면 리카도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시한 답이 어떤 문제의 답인지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이다.⁷⁾ 물론 리카도는 묵시적으로 전형문제의 일차적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형문제 해결의 전제가 되는 불변/가변자본의 구분 및 잉여가치의 개념 등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전개시킬 수는 없었다(II, pp. 173-174).

이와 같이 리카도가 가치와 자연가격 간의 관계를 중간고리 없이 추상적 이론과 구체적 현상간의 충돌로 설정했기 때문에 노동가치가 반증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즉, 리카도는 투하된 노동량에 관계없이 분배의 변동이 자본구성이 서로 다른 여러 상품의 가격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리카도는 이러한 결과를 일단 인정하고 이것을 투하노동가치설에 대한 수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II, p. 191). 그러나 투하노동가치설이 정치경제학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했던 리카도로서는 노동가치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이론적인 수준에서 노동가치설의 수정을 인정했던 리카도는 그것의 타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을 논리적인 정합성이 아니라 현실 경제 속에서의 경험적인 중요성으로 바꾸는 회피책을 쓰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리카도는 현실 경제에서 생산성 및 노동가치를 결정하는 기술변동에 비해 분배상의 변동이 수량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된다(『원리』, pp. 36-37).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전개상 등장한 내부적인 난점을 현실의 경험에 의존해 회피하려는 노력으로서 근본적인 방어책이 될 수 없었다.⁸⁾

7) 이와 같은 상황은 세부적인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를 자체를 새로 설정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마르크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흔히 마르크스와 반대 극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에크도 수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Hayek, 1976, v).

8) 이와 비슷한 사례는 신고전학과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케인지언들이 미시적 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임금/가격 경직성을 경험적인 사실로 당연시했던 것을 뉴클래식컬들이 비판한 것은 그러한 예이다.(Nell, 3장, 특히 pp. 45-46)

리카도가 맬서스에게 노동가치설을 반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도 이러한 약점 때문이었다고 마르크스는 지적하고 있다(Ⅲ, 14, pp. 30-31).⁹⁾

지금까지 논의된 리카도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종합해 보자. 스미스에 이어 등장한 리카도는 학설사적 위치로 보아 투하노동가치설에 근거해 논리적인 일관성을 주장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투하노동가치설을 자본주의의 기반 또는 본질로 선택하고 이에 근거해 모든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하려고 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한계를 안게 된다. 그러한 한계란 본질을 구성하는 추상적인 법칙을 매개고리에 의존해 가장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시키려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카도는 노동가치로부터 생산가격으로 이행하는 중간고리를 구축하지 않는 결함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임금변동과 생산가격의 관계라는 부차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스미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제반 난점들은 자신이 제기할 수 없었던 전형문제와 리카도가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리카도의 논의상 결함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형문제를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독특한 주장이다.

이제 스미스에 대한 비판과 리카도에 대한 비판을 비교해 보자. SR는 모두 투하노동가치와 자연가격(혹은 생산가격)간의 연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가격현상을 투하노동가치설로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Ⅱ, pp. 173-222). 그러나 스미스의 경우 잉여가치를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투하노동가치의 법칙과 결합시키지 못함으로써 지배노동가치설이나 생산비설로 전락해 투하노동가치설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비해 리카도는 투하노동가치설을 철저히 유지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잉여가치에 대해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가치와 생산가격 간의 이론적인 불일치를 실증적인 차원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본질을 구성하는 원리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 부당한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스미스의 문제였다면, 이와 반대로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 전혀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9) 이런 취약성으로 인해 '93% 노동가치론'이라는 평가도 나오게 된다(Stigler, 1958).

본질로 환원하려고 노력한 것이 리카도의 문제였다.

이런 이유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볼 때 스미스와 리카도 간의 관계는 단선적인 진보나 후퇴가 아니라 일면 진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퇴가 된다. 스미스가 비록 투하노동가치설에 의존해 일관된 논리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외면적인 결함을 갖고 있으나, 이런 논리적 혼란 속에서 그가 잉여가치에 대해 직감하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리카도는 비록 투하노동가치설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외견상 긍정적이지만 스미스와 같은 예감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예로서 I, 71, pp. 81-82).

pp. 81-82,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변동이 자본주의 생산과 함께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카도보다 우위에 있다. 반면 체화된 노동과 산 노동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변동함으로써 상품의 상대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자신의 견해로부터 —비록 자신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반박하고 있는 견해이지만— 결코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리카도에 비해 열등하다.....”(밑줄친 부분은 추가됨)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의 이론은 스미스의 예감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면서 리카도의 기반인 투하노동가치설을 포용함으로써 SR를 비판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IV. 마르크스의 批判이 갖는 特徵

SR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비판의 기준으로 삼았던 비판내용과 비판방식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판내용은 마르크

10) 부차적이지만 스미스와 리카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추상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스미스의 경우 자본일반의 수준에서 투하노동가치의 법칙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비해 리카도의 경우에는 개별자본의 수준에서 생산가격을 투하노동가치로부터 구분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논의로 보자면 각기 『자본론』 1권과 3권의 수준에 상응하는 것이다(Marx I, p. 82, p. 92).

스가 모든 경제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한 ‘잉여가치 개념의 결여’와 ‘가치형태에 대한 간과’라는 두 가지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잉여가치 개념보다는 가치형태 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논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혼란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비판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근거해 비판내용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마르크스가 SR에 대한 비판에서 보여 준 비판방식의 특징은 총체적, 비실증주의적 그리고 내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는 스미스가 제시한 여러 가지 가치론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투하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 간의 결합이라는 핵심적인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스미스가 제시한 여러 가지 가치론을 이와 같이 종합해 이들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은 총체적이다.

리카도에 대한 비판에서도 비슷한 성향이 드러난다. 리카도의 일관성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추상화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려는 오류를 낳고 있어 부정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해석했다. 또한 이윤/임금 변동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수와 어색한 논리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내고 있다. 나아가서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전체계에 대해 학설사적인 위치, 연구방법이나 전체의 구성, 그리고 이론상의 결합 등을 상호 연관짓고 있어 역시 총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물론 마르크스의 『학설사』에 개별이론들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여타 학자들이 SR를 해석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비판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해석에 있어서 각 부분에 대한 비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전체성을 지향하며,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여타 학자들은 개별적인 비판들을 종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항상 전체로 묶이지 않는 여지를 남겨둘 준비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우연으로 돌리거나, 설명되지 않는 잔여를 남겨 두거나, 또는 근사치에 만족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SR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이론 속에서 드러나는 오류나 잔여는 이들의 논리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해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

한 차이로 인해 여타 학자들의 비판방식과 비교할 때 마르크스의 비판을 총체적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미스가 구체적인 언어로 제시한 것을 넘어서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독해방법은 반실증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지배노동가치론이 가치론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외면적인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단순한 오류나 실수로 처리하지 않았다. 스미스가 비록 개념화하지는 못했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과 잉여가치의 존재에 대해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가능했다고 말해 긍정적인 이면을 지적하고 있다.

리카도에 대한 비판에서도 마르크스는 단지 표면에 드러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리카도가 가치론과 관련하여 범한 여러 가지 실수들을 그 자체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일견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내려고 노력했다. 마르크스는 문장 그 자체가 표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전부가 아니며, 그것의 내면은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스미스가 잉여가치의 개념에 대해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오류 그 자체만으로는 읽어 낼 수 없고 스미스가 앞서 제시한 여타 가치론, 특히 투하노동가치론을 감안할 때만 가능하다. 또한 리카도가 전형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판정도 그의 학설사적인 위치나 방법론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실증주의적인 성격은 비판의 총체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끝으로 사고의 표피인 표현과 함께 사고의 잠재성을 나타내 주는 내면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사고의 내적인 발전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가 SR의 전체계를 고착된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력을 가진 하나의 운동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미스가 제시한 세 가지 가치론이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된 것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리카도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실수와 논의의 배후에 있는 사유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

물에 표면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 혹은 정(A)과 반(non-A)이 공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인식의 운동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스미스나 리카도의 저작 전체를 내적인 발전과정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변동을 추적했다고 볼 수 있다.¹¹⁾

내적인 운동을 추적하는 노력과 앞서 제시된 총체성 및 비실증주의적 성격이 결합되면서 마르크스는 고착된 원문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 내어 일반론으로 제시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이들 여러 부분들이 그것의 배후에서 꿈틀대고 있는 사유의 발전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보아 바로 이러한 사유의 발전을 포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표면에 나타난 표현이나 자료의 반복성 및 규칙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나 자료의 배후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의 비판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학자가 표면적으로 제시한 문구나 논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 내려는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숨겨진 의미를 찾는 데 단서가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문제들이나 체계 내에서의 실수, 이로부터의 이탈, 이것과의 상충, 혹은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들이다. 마르크스는 실수/이탈/상충/잔여를 하나로 종합해 숨겨진 체계를 형성하고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표면상의 체계와 숨겨진 체계 또는 표현된 것과 억눌린 것을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비판의 대상에 대해 일체성을 부여하고 자의성이나 우연성을 배제하여 종합적인 비판을 내세우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학자의 모든 논의사항들은 그것의 진위 또는 진리성에 관계없이 총체적 체계의 필연적인 일부가 된다.¹²⁾

총체성, 비실증주의성, 내적인 운동을 추구하는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은 SR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학설사』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서, 케네의 전체계를 ‘봉건주의 생산양식의 부르주아적인 재생산’

11) 자본주의 분석에서나 이론에 대한 분석에서나 공히 ‘내적인 논리’라는 개념이 핵심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줄고(1991)에서 지적한 바 있다.

12) 이런 관점에서 알튀세르(Althusser, Préface pp. 9-86)만큼 명확하게 마르크스의 독해 방식을 꿰뚫고 있는 학자도 드문 것 같다. 그는 이와 같은 해독방법을 ‘침묵의 웅변’이나 ‘非可視的인 것의 可視化’로 규정하고 ‘증후적인(symptomal)’ 해독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그는 이런 방법을 니체와 프로이트도 구사했다고 본다. 이러한 ‘웅변하는 침묵’의 예는 인식뿐만 아니라 현상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사회에 있어서 흑인 또는 ‘색깔’ 문제에 대한 침묵이나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학연과 지연에 대한 침묵 등이 그러한 예이다.

으로 규정한 것(I, pp. 49-53), 스미스의 생산적 노동론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에 관한 논의(I, pp. 155-174), 혹은 맬서스의 판매이윤/과소소비론/비생산적 계급론에 대한 평가(III, Chapter XI, X)도 동일한 비판방식의 소산이다.

또한 이런 비판방식은 단순히 스미스와 리카도 각각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마르크스 자신의 관계로까지 이어진다. 리카도 체계의 학설사적인 필연성은 스미스와 리카도의 학설사적인 연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마르크스가 스미스에게서 잉여가치의 개념, 리카도에게서 전형문제에 대한 默示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과 자신 간의 연속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SR가 자본주의의 고유성이나 잉여가치 및 가치형태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어 마르크스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복되어 있는 사고의 흐름을 더불어 고려한다면 마르크스와의 연속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SR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이미 확고하게 설정된 개념의 원용이나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결여(잉여가치)와 문제의식의 결핍(전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개념이나 문제의식은 문제틀(problematic)을 구성하므로 마르크스의 비판은 SR이 제시한 해답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SR에 대한 마르크스의 긍정적인 평가도 바로 SR이 제대로 된 문제틀을 잉태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당연히 문제의 발견과정 또는 설정과정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은 경제이론이나 학설사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비판방법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이론에 대한 평가기준은 논리적인 정합성과 경험적인 타당성으로 압축될 수 있다. 논리적인 정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역과정에 있어서 모순, 비약, 순환 또는 중복 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경험적인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이론의 전제나 결론이 현실성을 갖는지 따진다. 경제학설사에 대한 논의에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 이외에 사상가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해당 시기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이해(verstehen)하려는 노력이 추가된다. 이런 방법은 주로 베버(M. Weber)와 쾰바르트(W. Sombart)에 의해 주창된 것이며, 만하임(K. Mannnheim)류의 지식사회학적인 줄기를 이루게 된다.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을 예로 든다면, 정부지출의 증가가 고용창출을 가져 오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지출에서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에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질 수도 있고, 그가 가정한 가격 및 임금의 경직성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경제이론에서 활용하는 기준들이다. 학설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케인스의 성장과정이나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자본주의 경제나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

신고전학파적인 입장에서는 이론이나 학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오로지 논리적인 정합성과 경험적인 타당성에만 의존한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사회과학 전반 및 경제학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포퍼(K. R. Popper)의 ‘비판적인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이다. 마르크스가 속류 경제학에 대해 현상의 표면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이비과학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포퍼는 마르크스의 체계가 ‘과학의 기준(line of demarcation)’인 반증/반박 가능성(falsifiability/refutability)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Popper, 11, 16장). 이런 입장에서는 문제 상황(problem situation)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나 문제발견의 논리(logic of scientific discovery)에 대해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찾기’보다는 ‘답찾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일관되게 포퍼적인 입장에서 경제학자들과 SR을 해석한 학자가 블로그(M. Blaug)이다. 블로그는 스미스가 가치의 결정요인과 가치척도라는 두 가지 문제를 혼동했으며, 투하노동가치설과 지배노동가치설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혼동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블로그는 불문하고 있다(38, pp. 52-53). 이런 방법을 좇는 경우 이론상의 오류는 단순한 착오로 처리된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특정 학자의 사상적 흐름 전체에 비추어 문제되는 오류의 필연성을 규명했던 것과 대비된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론 등 이론의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비판방법 등 방법론에 있어서도 마르크스가 신고전학파적인 관점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의 비판방법은 흔히 사상가가 출현한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의존해 학자의 문제상황을 이해하려는 학설사의 방식과도 구분된다. 물론 마르크스 자신도 나름대로 이 방법을 간간히 구사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경제의 상황은 흔히 생산양식 및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의 단계라는 측

면과 계급 간의 세력관계라는 측면으로 압축되는데, 『학설사』의 일부와 『자본론』 등에서 이에 근거한 비판이 등장한다. 예로서, 『학설사』에 등장하는 중농주의에 대한 비판이 다소간 이와 같은 색채를 띠고 있으며(I, 2장), 독일 경제학의 후진성에 대한 『자본론』의 설명은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I 권, 독어 2판 서문, 특히 pp. 13-17).

그러나 SR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이런 방식을 중시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SR의 오류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회적인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이들 자신의 논리 전체에 내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은 넓은 의미에서 내적인 비판(internal critique)이라고 볼 수 있다. 내적인 비판이란 비판대상이 되는 사상가의 전제나 가정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논리적인 결함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이다. 흔히 내적인 비판을 주로 구사한 학파로서 현대의 신리카도학파를 들 수 있다. 신고전학파의 생산함수와 관련하여 신리카도학파가 불러일으킨 자본논쟁(capital controversy)은 이에 대한 단적인 예이다(G. Harcourt). 그렇지만 이들의 내적인 비판과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신리카도학파의 내적인 비판은 여전히 신고전학파의 모순이나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신고전학과 전체를 놓고 조망하면서 그러한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마르크스의 비판방식과 비판내용을 결합시켜 보자. 비판내용은 잉여가치와 가치형태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이것들은 자본주의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개념들로 통상 자본주의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는 노자계급관계에 근거한 착취와 생산의 무정부성을 두 가지 특징으로 삼는다. 전자는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이라는 구분에 따라 잉여가치라는 개념을 가져오며, 후자는 가격과 화폐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치형태라는 개념을 낳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에 자본주의 현상을 파악하려는 마르크스 나름대로의 방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자본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현상을 파악하는 잉여가치와 가치형태 역시 총체적이며 반실증주의적이고 내적인 운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와 가치형태를

포괄하는 가치 및 자본이 마르크스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치와 자본은 자본주의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성을 가진다. 가치는 개별 상품보다 논리적으로 앞서면서 개별상품들을 압도한다. 자본도 개별적인 자본가나 자본들의 사후적인 총합이 아니라 이들보다 원초적으로 존재하면서 이들을 제압하는 일차적인 성격을 갖는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자본이 논의된 후에 개별자본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가치와 자본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자체로 환원되지 않는다. 가치나 자본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상품이나 화폐이지만 이것들은 가치나 자본이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존재방식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가치나 자본은 상품이 나 화폐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자본은 상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면서 동시에 상품이면서 화폐이다”라는 마르크스의 진술이 이해될 수 있다(『자본론』 I 권 독일어판, pp. 168-169). 이렇게 본다면 가치와 자본은 비실증주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끝으로 가치와 자본은 타력이 아니라 자력에 의존하는 운동이다. 그것은 개별 경제주체들에 의해 창출되거나 인식되지 않으며, 자연의 신진대사나 법적이거나 정치적인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이것은 가치와 자본이 내생적인 운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경제의 흐름이 한 시점에서 고착되어 나타난 것이 현상이나 현실의 자료라고 본다. 이 때문에 단편화된 현상에 근거한 이론화와 자료처리는 제한적인 의미밖에 가질 수 없으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총체적이며 내적인 운동이 표면화된 것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경우 이러한 잔여는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에 있어 비판기준과 비판방법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현상과 인식 모두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현상에 대해 외양과 본질로 구분한 것과 비슷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표면과 이면을 구분하게 된다. 또한 이같이 인식과 현상 모두에 대해 일종의 심층적인 구조(deep structure)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실재주의와도 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awson, Fleetwood).

V. 마르크스의 批判이 갖는 意味

이 논문에서는 경제학 전반에 걸친 마르크스의 비판을 배경으로 SR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분석함으로써, 노동가치론이나 역사철학적인 입장에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될 수 있는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마르크스의 비판방식에 대해 쉽사리 가부의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 여기서는 그의 비판방법이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실질적인 연구와 관련지어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원전강독이나 문헌비평 등에서는 실증주의적인 해독보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는 마르크스류의 비판이 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경제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경제사상이라는 보다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대적인 이론작업에 있어서도 초기에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리된 후에 진행되는 세부적인 이론작업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현대의 경제학 논문에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기 힘든 이유도 이미 문제가 말끔하게 재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비판방법은 한국 학계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각된다. 한국의 학계는 내적인 동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해방 이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외국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이론들이 소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문제를 자체나 문제의 제기과정에 대한 이해가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외국 이론이 한국 경제에 맞는지 실증적인 방법으로 시험해 보는 것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이론정착이 불가능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홍 훈,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兩軸: 노동가치설과 내적 논리,” 『현상과 인식』, 1991 가을.
2. ———, “살라마의 가치론: 비판: 轉形문제에 대한 돌파구인가?” 『經濟理論과 韓國經濟』, 崔虎鎮 博士 講壇50週年紀念論文集, 1993, pp. 41-

- 59.
3. Althusser, L. and E. Balibar, *Lire le Capital*, I, II Francois Maspero, 1968.
4. Blaug, M.,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4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5. Dobb, M.,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6. Fleetwood, S., "Critical Realism, Marx and Hayek," in W. Keizer *et al.*, eds., *Austrian Economics in Debate*(forthcoming), Routledge, 1997.
7. Harcourt, G. C., *Some Cambridge Controversies in the Theory of Capi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8. Hayek, F. A. v., *The Sensory Order*, Routledge & Kegan Paul, 1976.
9. Lawson, C., "Realism, Theory and Individualism in the Work of Carl Menger," *Review of Social Economy*, Vol. LIV, Winter 1996, pp. 445-464.
10. Lawson, T., "Abstraction, tendencies and stylized facts: a realist approach to economic analysi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3, 1989, pp. 58-78.
11. ———, "Critical Realism and the Analysis of Choice, Explanation and Change," *Advances in Austrian Economics*, Vol. I, JAI Press, 1994, pp. 3-30.
12. Lipietz, A., *The Enchanted World*, Verso, 1985.
13. Marx, K., *Capital*, Vol. I, III,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14. ———, *Theories of Surplus Value*, Part I, II, III,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9.
15. ———,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16. ———, *Theorien über Mehrwert*, MEW Band 26.1, 26.2, Berlin: Dietz Verlag, 1987.
17. Nell, E., *Free Market Conservatism*, George Allen & Unwin, 1984.
18. Popper, K. R., "The Demarcation Between Science and Metaphysics," "Pre-

- diction and Prophecy in the Social Sciences," *Conjectures and Refutations*, Harper Torchbooks, 1963.
19. 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dited by P. Sraff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20. Rima, I., *Development of Economic Analysis*, Irwin, 1986.
 21. Sayer, D., "Science as Critique," in J. Mepham and D. Hillel-Ruben, eds., *Issues in Marxist Philosophy*, Vol. III, Harvester Press, 1979.
 22. Smith, A.,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E. Canna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37.
 23. Stigler, G. J., "Ricardo and the 93% Labor Theory of Valu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58.